


<p>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p>	<p>배 포</p>	<p>2019.8.13.(화)</p>
 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			<p>담 당 과 (과장/서기관 ·사무관)</p>

식약처, 추석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·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.
- 주요 점검 내용은 ▲무등록(신고) 제조·판매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▲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▲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.
-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·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·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,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,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-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, 사과, 고사리, 조기, 명태, 주류,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,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,
 - 오는 8월 23일 ‘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’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, 대형마트,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
- 또한 제수용·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▲고사리·밤 등 농산물(7개 품목) ▲포도주·건어포 등 가공식품(5개 품목) ▲프로바이오틱스·프로폴리스·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(5개 품목) 입니다.
-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-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(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)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.
 - * 스마트폰의 경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

<붙임>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계획

□ (국내식품) 성수식품 제조·판매업체 점검 강화(합동점검)

- 기간/기관: '19. 8. 21.~8. 27. / 식약처, 지자체
- 대상: 추석 성수식품 제조(1,210여 곳), 판매업체(2,540여 곳) 등 3,750여 곳
* 수거·검사 병행실시: 주류, 조리식품, 농·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,260여건
- 주요 점검내용: 무등록(신고) 제조·판매 행위,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·판매 행위,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행위,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
- 위반업체 조치: 행정처분 및 고발(고의적 위반업체)

□ (수입식품) 수입 통관단계 시 검사 강화

- 기간/기관: '19. 8. 19.~8. 30. / 식약처(6개 지방식약청)
- 대상: 고사리, 밤 등 농산물(7개 품목), 포도주, 건어포 등 가공식품 (5개 품목), 프로바이오틱스,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(5개 품목)
- 검사항목: 납, 카드뮴, 총 아플라톡신,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
- 부적합 제품 조치: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